

주석님은 정녕 백두산 형의 위인이십니다

진보적인류와 함께 불세출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님의 력사와 더불어 훌륭한 주체 100년사를 송암히 돌아보며 태양절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는 이 시각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워주신 주석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끊어올라 칭송의 글월을 엮고 싶은 열망 억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마치 18년 전 4월 15일 새로 조선공민족화단 성원들과 함께 탄생일을 맞으신 주석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그분의 품에 안겨 영광의 기념촬영을 하던 그날인듯습니다. 그때로부터 나는 깜차뜨까에서 서사시 『백두산』 운률에 마음부치며 시인이 천년이끼오른 바위를 벼루삼아 창풀처럼 고루에 터칠수밖에 없었던 그처럼 위대하신 분의 거룩한 모습을 우러으며 살았습니다. 이 과정에 언제부턴가 김일성주석님은 백두산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참으로 백두산과 같은 모습이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석님께서 한평생 열렬히 사랑하신 조국에서 태양절대축제를 체험하고 보니 참말로 그분은 백두산형의 위인이시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그 흥분된 심정을 솔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밤입니다. 나는 가장 위대한 분의 거룩함에 티가 될가 저어되는 소박한 필치로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우에 감히 그분의 모습을 세워보렵니다.

1

김일성주석님은 백두일출과 같은 모습입니다.

나의 조국방문충격의 하나는 백두산 등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백두일출경관을 체험하였습니다. 장엄하게 솟은 백두산에 해살이 펴지니 백두는 온통 붉었습니다. 산악을 휘감은 노을은 불길같고 기암괴석은 붉은 진주같았습니다. 천지호반에는 진홍빛일만경개가 반짝이고 붉은 밀림의 바다는 대교향악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민족의 기상과 넓이 깃든 혁명의 성산임을 가슴뿌듯이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세계의 독특한 경치라 일컫는 오스트랄리아 마슬린의 남태평양해돋이와 일본의 후지산해돋이화면도 본바 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백두일출에는 순수한 자연경관이 아닌 넓이 있고 사연이 있었으며 노래가 있었습니다.

천하대장관이 그것이었습니다. 백두산자락아래 펼쳐진 인간화원과 행성에 비껴간 주체의 노들이 심장으로 느껴집니다. 백두는 마치 그 태양은 바로 주석님이시라고 웨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참말로 그분의 모습이 다가옵니다.

분명 위대한 인간태양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분의 모습은 평면에 술의 극치라 하는 초상미술로 그려낼수 없고 미의식으로도 완벽하게 표현할수 있는 태양 그 자체입니다.

조선민족이 태양의 모습을 뱙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배달민족의 건국시조인 단군의 이름과 『조선』, 『고구려』, 『고려』라는 국호를 통해서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밝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랬으며 역사가 전하는 명인전을 봄도 인걸이 배출되는 조종의 산에 얼을 물고 얼마나 아름다움을 찾아주신 운명의 태양이 빛나는 성스러운 내 조국입니다.

2

김일성주석님은 백두산 앙간에 웅건한 모습입니다.

흔히 성산에서 위인이 나고 위인은 성산을 맑는다 했지만 나는 달리 생각합니다. 백만년 잠자던 백두를 혁명의 종성으로 깨우신 분, 거악의 천변만화를 길들여 짐장을 준 위인을 바로 백두가 맑고 있습니다.

이렇게 꺼져가던 겨레의 심장에 바동을 주신 분은 김일성주석님이시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백두에서 인간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찾기 위한 사생결단의 반일성전을 단행하시어 고국땅에 해방의 불을 안아오시고 백두의 나를 세우시였습니다.

그 태양이 펼친 화원은 아름다운 인간세상이었습니다. 인민이 하늘로 받들리우는 천국이었고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터전이었으며 당도 인민을 위해 존재하는 어머니당, 정권도 인민이 주인이 되어 권리의 행사하는 민정권이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인간이었지만 존엄이 무엇인지도 인간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조차 모르던 사람들이 운명의 주인, 인간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의 운명도 국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살길 찾아 두만강을 건너온 류량민들의 눈물에 젖은 애창곡 『집없는 천사』가 『내 나라 제일로 좋아』로 바뀌지고 동포들 모두가 『김일성』이라는 존함으로 불리우는 당당한 조선공민으로 살게 되었으며 소박한 애국의 마음이 그대로 조국청사에 새겨지는 인생의 락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석님은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쌓으시고도 너무 소박하시어 자신을 늘 인민의 아들이라 하시였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혈맥을 다시 뛰게 하시고 인민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신분을 운명의 태양이라 칭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조국과 수천m 떨어져있는 이국에 살면서 백두대양의 빛에 지경이 없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운명의 태양을 얼마나 갈망했는가 하는 것은 고대에 짚트의 태양신이나 지중해 로도스섬의 태양신, 메테오의 태양파라미드를 통하여 그리고 마야족들이 태양신에게 『사람제』를 지내고 인족들이 태양가까이 기려고 안데스계곡을 넘은 사실을 놓고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태양은 순수 자연계의 황성일파를 이었습니다.

인류는 김일성주석 그분을 모심으로 하여 진리의 빛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빛의 『세기』를 알게 하는 금수산 태양궁전이 바로 평양에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그분의 영생의 모습을 뵙고 지금도 받고 계시는 훈장, 메달, 명예칭호. 한점 한점을 눈에 익혔습니다.

『주체사상으로 자주시대의 진로를 열어주신분』, 『만민의 태양』, 『인류의 앞길을 밝히신분』이라 격찬한 근 250점의 종서들과 나아제이파 우모지공동제왕이 『...김일성주석각하를 영원히 태양으로 밝힐 것을 니체르강과 조상들의 땅에서 엄숙히 다짐한다.』

고 맹약하며 울린 『태양죽장침호』 앞에 서면 여기가 인류의 마음이 세운 태양의 성지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사상과 정견, 신앙과 언어를 초월한 이승봉심은 인류가 지혜를 합쳐도 찾지 못했던 인간중심의 사상과 인민의 지향과 요구가 완벽하게 실현된 인간세상의 모델에 매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60여개 나라의 대표들이 참가한 속에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세계대회에서 태양의 『신자』를 들다시금 그것을 몰론 중했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민민을 깨우치는 참삶의 유일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인간중심의 그 학설을 리론적으로 정립하시여 인류는 영원한 인간만세의 봄노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9년전, 공화국창건 55돐을 맞으며 원동지역 공민조국방문단을 이끌고 조국에 왔을 때 본 한절의 그림이 떠오릅니다. 작품에는 주석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계시는 모습이 형상되어 있는데 애들 가운데는 그분의 모자를 쓰고 있는가 하면 장난하던 손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있고 아래 그분께 매달리려 맨발로 의자에 오르는 애도 있었습니다. 불수록, 생각할수록 우리 동포들의 모습을 담은것만 같아 축축히 웃을 것입니다.

나는 그림으로 백두의 정신을 봅니다. 그이의 인간미에 매혹된 투사들은 후세에까지 전해지는 자기의 령도자에 대한 복합함을 숭배심과 자력갱생의 힘, 꿔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의지를 백두에 새기었습니다. 그분은 백두에서 만물의 주인이며 지배자인 인간이 지닐수 있는 정신력의 최고높이를 온세상에 증명하였습니다.

나는 이번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장엄한 무력시위를 보면서 참다운 인간세상을 헤치려 할 때 백두가 어떻게 노호하는가를 알았습니다.

『신성한 공화국을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이 땅에 단 한발의 포

미사일도 떨어진다면』이라는 선언들이 행성에 울릴 때마다 백두의 나라는 천만총검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길, 백두의 행군길을 닦아주신 백두산위인들의 퇴성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참다운 인간세상의 기둥을 흔들어 보려는 애수의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땅을 분여받고 춤추던 농민들, 산업부흥의 노래부르던 근로자들, 창건 2주년을 맞이한 정규무력은 15개 추종세력에 구일본군까지 합세된 200여만의 방대한 혁량파 단위면적당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량이 제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많은 무리와 맞섰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굽하지도 꺾이지도 않는 전통을 지닌 조선사람의 맛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리수복영옹처럼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는것보다 고귀한 생명이 없다는 인생관을 지닌 병사들, 해방된 땅에서 진정한 존엄을 알게 된 인민들의 정신력이 백여자의 전쟁에서 패한적 없다던 『최강』의 『신화』를 지구우에 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가장 위대한 인간의 승리였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더라면 라자구동관에

리채선

서 일어서지 못했을 것
이라고 밝혔듯이 조선혁명의 주인도 조선혁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신에 있다는 그분의 투철한 자주의식과 개척정신의 승리였습니다.

나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여 전쟁의 후파로 참혹하게 파괴된 조국땅을 밟으시는 주석님의 모습을 뵈울 때마다 가슴이 찌릿해지군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령도, 당, 국가, 인민이 있는 한 북구건설은 문제없다는 의지로 100년이 걸려도 일어서지 못한다고 한 미제의 궤변을 단 몇년이라는 기적의 시간으로 짓뭉개버리시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두의 전설적영웅의 담력이었고 배짱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런 의지로 14년 동안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완성하시였고 자주, 자립, 자위의 보루를 다지시였다는 것은 세상이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서방의 곤질긴 압력과 봉쇄속에 그 존립마저 기적으로 되는 조선이 우주강국으로 부상하고 혁보유국의 존엄을 떨치고있는 것도 그분께서 다져놓으신 국방통일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실로 해방후, 자위적인 국방공업창설을 위해 무기를 만드는것보다 사오는 값이 훨씬 높을 때에도 병기공장을 세우고 종공업을 먼저 건설하도록 하신 주석님의 만고의 업적이 사무처처럼 굳건한 자유의 나라, 인민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분의 사생결단의 의지가 그 승리의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교인은 아니지만 가끔 『일속』이 『창해』를 말리운것(일제는 항일유격대를 바다의 죽벌로 비교했다.)은 흥사 『노아의 홍수』 같은 변이였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백두태양은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려는 야수들을 쓸어버리고 조선민족을 그때 벌써 간해방, 민족해방의 『방주』에 태워주신것입니다.

나는 그림으로 백두의 노하우기술에 대한 분석글에는 『자력갱생! 정의로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창해』를 말로 운운하는 글이 아닐수 없다. 미국마저도 일본, 도이월란드, 등과 협업을 해야 인공위성을 쏘아올린다. 그런데 북은이 모든것을 100% 자체의 기술로 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얹세고 강한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신 백두산위인들이

세상에 의해 갈라져있는 남조선인민들을 찾으신것입니다. 그리고 선군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주신 김정일대원수님 생각에 가슴이 미여집니다.

내가 얼마전에 본 조선의 노하우기술에 대한 분석글에는 『자력갱생! 정의로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창해』를 말로 운운하는 글이 아닐수 없다. 미국마저도 일본, 도이월란드, 등과 협업을 해야 인공위성을 쏘아올린다. 그런데 북은이 모든것을 100% 자체의 기술로 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얹세고 강한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신 백두산위인들이

세상에 의해 갈라져있는 남조선인민들을 찾으신것입니다. 그리고 선군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주신 김정은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굽이 젖습니다.

주석님은 온 겨레를 사랑의 품에 안으신분이시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외세에 의해 갈라져있는 남조선인민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들생각에 머리절반이 허여졌다고 말씀하신분이시였습니다.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통일지도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민족우에 대한 정성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외세에 의해 갈라져있는 남조선인민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들생각에 머리절반이 허여졌다고 말씀하신분이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그 사랑을 자양으로 조국인민들은 자신보다 먼저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을 생각하는 고상한 정신을 배웠고 나보다 먼저 그에 물고신 피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자 그분께서는 그 넓은 동북을 헤쳐 그들의 자녀들을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키우시고 평생 부모구실을 하시였습니다.

나는 그림으로 백두산자락에 흐르고 있다는 그 사랑을 자양으로 만수대호로 모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넓은 동북을 헤쳐 그들의 자녀들을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키우시고 평생 부모구실을 하시였습니다.

세상에 얹세고 강한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신 백두산위인들이

세상에 의해 갈라져있는 남조선인민들을 찾으신것입니다. 그리고 선군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주신 김정은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굽이 젖습니다.

나는 이번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장엄한 무력시위를 보면서 참다운 인간세상을 헤치려 할 때 백두가 어떻게 노호하는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장엄한 무력시위를 보면서 참다운 인간세상을 헤치려 할 때 백두가 어떻게 노호하는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장엄한 무력시위를 보면서 참다운 인간세상을 헤치려 할 때 백두가 어떻게 노호하는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장엄한 무력시위를 보면서 참다운 인간세상을 헤치려 할 때 백두가 어떻게 노호하는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장엄한 무력시위를 보면서 참다운 인간세상을 헤치려 할 때 백두가 어떻게 노호하는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장엄한 무력시위를 보면서 참다운 인간세상을 헤치려 할 때 백두가 어떻게 노호하는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장엄한 무력시위를 보면서 참다운 인간세상을 헤치려 할 때 백두가 어떻게 노호하는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장엄한 무력시위를 보면서 참다운 인간세상을 헤치려 할 때 백두가 어떻게 노호하는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장엄한 무력시위를 보면서 참다운 인간세상을 헤치려 할 때 백두가 어떻게 노호하는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장엄한 무력시위를 보면서 참다운 인간세상을 헤치려 할 때 백두가 어떻게 노호하는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장엄한 무력시위를 보면서 참다운 인간세상을 헤치려 할 때 백두가 어떻게 노호하는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장엄한 무력시위를 보면서 참다운 인간세상을 헤치려 할 때 백두가 어떻게 노호하는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장엄한 무력시위를 보면서 참다운 인간세상을 헤치려 할 때 백두가 어떻게 노호하는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장엄한 무력시위를 보면서 참다운 인간세상을 헤치려 할 때 백두가 어떻게 노호하는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장엄한 무력시위를 보면서 참다운 인간세상을 헤치려 할 때 백두가 어떻게 노호하는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장엄한 무력시위를 보면서 참다운 인간세상을 헤치려 할 때 백두가 어떻게 노호하는가를 알았습니다.

삼천리 강로에 메아리 친 통일선언

위대한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 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자신의 통일의지를 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민족주선으로 애국애족의 통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였고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을 힘차게 전진시켜온 조국통일의 혁명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라고 하신 그이의 선언은 열병광장을 울리고 온 강산에 아리쳤다.

절세 위인들의 희생의 뜻과념원이 글을마다에 어려있고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기어이 안아오고 애말 김정은 최고령도자의 굳은 확신이 도도히 막박치는 연설에서 사람들은 장구한 민족분별사의 갈피마다에 새겨진 송고한 통일애국의 자욱을 경건한 마음으로 되새겨보게 되었다.

조국통일!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분별의 아픔을 가셔주시려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는 통일의 길에 한생을 바쳐오시였다.

아버지 수령님은 민족분별

의 첫 시기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민족주선으로 애국애족의 통

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였

고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을

힘차게 전진시켜온 조국통일의 혁명이다.

그나마 언제인가는 해산

수령님의 심복과 고교의 무

수한 낫과 봄을 천연이 가도

만년이 가도 잊을수 없다.

『김일성

1994. 7. 7.』

아버지 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에 조국통

일관계문건에 남기신 이 글

받은 지금도 분별의 상징 판

문점에서 통일의 기치로 빛

나고있다.

천필비를 마주할 때면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통일애국의 길에서 6. 15시대

를 개척하신 위대한 장군님

의 불멸의 업적이 가슴뜨겁

게 되새겨진다.

어려운 20성상 항일대전

의 혈로가 결코 나라의 반

쪽을 위하여 헤쳐오신 풍

찬로 속의 길이 아니었기에

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

우에 물이 나도, 가물이 들

어도 가슴아픔으로 잠 못

이루시였고 재난을 당한 남

녘동포들에게 혈육의 정을

해 걷고걸으신 그이의 애국

기울이시였다. 통일을 바라

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정

견, 과거까지도 불문하시고

민족주선으로 애국애족의 통

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였

고 어려워하시는 그이의

기침이 시끄러운 일원이 되도

록 보살펴주시고 고마하시

며 이끌어주신 민족단합의

위대한 구성이시였다.

통일만 되면 10년은 더

짊어질 것 같다고 하시던

수령님의 심복과 고교의 무

수한 낫과 봄을 천연이 가도

만년이 가도 잊을수 없다.

『김일성

1994. 7. 7.』

아버지 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에 조국통

일관계문건에 남기신 이 글

받은 지금도 분별의 상징 판

문점에서 통일의 기치로 빛

나고있다.

반통일세력이 제아무리 쥐

새끼처럼 쓸라타거리며 조

국통일의 앞길에 빗장을 지

른다고 해도 통일성업을 반

드시 성취 할것이라는것이

6. 15시대의 민족의 드림없는

의지이며 한결 같은 지향이

다. 통일에 대한 민족의 절

우에 물이 나도, 가물이 들

어도 가슴아픔으로 잠 못

이루시였고 재난을 당한 남

녘동포들에게 혈육의 정을

해 걷고걸으신 그이의 애국

기울이시였다. 통일을 바라

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정

견, 과거까지도 불문하시고

민족주선으로 애국애족의 통

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였

고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을

힘차게 전진시켜온 조국통

일의 혁명이다.

김정일을 위해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통일을 위한 혁명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라고 하신 그이의 선언은 열병광장을 울리고 온 강산에 아리쳤다.

절세 위인들의 희생의 뜻과

념원이 글을마다에 어려있고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기어이

안아오고 애말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통일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김정일은 최고령도자께서는

통일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이역만리에 굽이친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 (1)

* * * 우즈베끼스딴에서 사는 동포들을 찾아서 * * *

만물이 소생하는 가장 경사스러운 봄명절을 맞으며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봄물 마냥 굽이쳐 흐르던 지난 4월 초 본사취재단은 중앙아시아 대륙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을 찾아 취재의 길에 올랐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이즈음 멀리 이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과연 이 뜻깊은 하루하루를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

비행기시찰으로 내려다볼 때는 해발고가 수천m나 되어 사계절 흰옷을 벗지 못한다는 천산줄기 자락에 따스께 뜨시가 바삭 불어있어 기운이 좀 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내려보니 이름모를 꽃들이 활짝 편 화창한 날씨였다.

중앙아시아지역에서는 가장 오랜 도시에 걸맞게 어디나 사원들과 성벽을 비롯한 옛 건축물들이 눈에 띠어 우리에게 따스께는 이국적인 감이 더욱 짙게 느껴졌다.

《그래 조국에서는 모든 일이 다 잘 돼가고 있습니까?》

따스께 뜨시 아꾸르간쓰까 야거리에서 살고 있는 올해



석명손 국제고통련위원장

74살의 석명손 국제고통련 위원장이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전년 인사말이었다.

다민족국가에서 사람들 의 언어와 페부색이 각이한 이곳에서 친할아버지를 련상케 하는 그의 정깊은 말을 들으니 5시간의 비행기 여행과 4시간이라는 조국파의 시간차로 하여 오는 피로도 가뭇없이 사라지는 것

그는 위대한 주석님 탄생 100돐에는 어떻게 하나 평양에 가려고 오래전부터 궁리해왔는데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마음속에서 재만 태운다면 『실은 이 몸이 잘못인데 하느님에게만 사대질을 하며 유품을 하구 않았아오다』하고 허구를 웃음을 짓는 것였다.

그는 딸을 시켜 한상의 사진도 우리 앞에 정히 펼쳐보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2돐이 되는 1994년 4월에 평양에서 주석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이라우.』

만 같았다. 운다는 기별도 없이 귀한 조국손님들을 집으로 모서 와 자기를 난처하게 만들다고 안내일군을 가볍게 나누 람하는 그를 따라 우리는 방으로 들어섰다.

한때 대학교수도 했다는 석 위원장의 말을 증명이나 하듯 벽면의 책장에는 많은 도서들이 질서있게 꽂혀있는데 그중에는 『김일성전집』과 『김정일선집』을 비롯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로작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그는 최근 모스크바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도서가 새로 나왔는데 빨리 보고싶어 그곳에 사는 아들에게 부탁을 해놓았다고, 며칠 후에 왔더라면 조국손님들에게도 보여드리는 건데 하며 아쉬워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는 뜻깊은 때에 조국에서 까지 도서를 출판하는 것을 보면 우리 주석님과 장군님은 역시 큰 분이시였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갈마들지요.』

하며 인터넷으로 본 그 책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에 여념이 없던 석 위원장은 자기 말만 해서 미안하다며 이렇게 묻는 것이라고.

『지금 조국에서는 태양절 경축분위기로 벅적 끊고있겠지요?』

그는 위대한 주석님 탄생 100돐에는 어떻게 하나 평양에 가려고 오래전부터 궁리해왔는데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마음속에서 재만 태운다면 『실은 이 몸이 잘못인데 하느님에게만 사대질을 하며 유품을 하구 않았아오다』하고 허구를 웃음을 짓는 것이라고.

그의 진정어린 말뜻을 우리는 다음날 스트로이 젤리나야거리 1번지에 있는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 회장에서 열린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사진전시회장에서 실감하였다.

백두산 3대 장군의 영상사진들과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의 사진이 정중히 모셔져 있고 조국통일을 위한 북파남, 해외동포들의 활동과 강성국가건설에서 눈부신 전면을 알아온 조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된 이곳으로 수많은 동포들이 모여들었던 것이다.

참관자들은 절세위인들의 사진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멈추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모신 끝없는 감격과 궁지에 대하여 너도나도 앞다투어 토로하였다.

따스께 뜨시에서 산다는 채 일리야녀성은 우리에게 『백두산 천 출위인들이 신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께 매혹된 이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선군정치 하나님만 보아도 그렇다.』

최근에도 많은 나라들에서 고국의 선군정치를 따라배우

이렇게 시작된 석위원장의 말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자기들을 친애하는 군사강화를 앞둔 뒤로 맞아 보살펴주시던 뜻 잊을 날에 대한 추억의 이야기로 시간가는 줄 몰랐는데 언제부터였는지 그의 눈시울은 축축히 젖어 있었다.

그는 여기 우즈베키스딴에 일찌기 절세의 위인들과 뜻깊은 인연을 맺고 그분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 아니라며 정밀심, 조윤해, 또 누구누구하고 손가락을 꼽아며 한명한명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따스께 뜨시에 사는 어느 동포를 막론하고 위대한 주석님을 그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였다.

그의 진정어린 말뜻을 우리는 다음날 스트로이 젤리나야거리 1번지에 있는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 회장에서 열린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사진전시회장에서 실감하였다.

백두산 3대 장군의 영상사진들과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의 사진이 정중히 모셔져 있고 조국통일을 위한 북파남, 해외동포들의 활동과 강성국가건설에서 눈부신 전면을 알아온 조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된 이곳으로 수많은 동포들이 모여들었던 것이다.

참관자들은 절세위인들의 사진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멈추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모신 끝없는 감격과 궁지에 대하여 너도나도 앞다투어 토로하였다.

따스께 뜨시에서 산다는 채 일리야녀성은 우리에게 『백두산 천 출위인들이 신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께 매혹된 이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선군정치 하나님만 보아도 그렇다.』

최근에도 많은 나라들에서 고국의 선군정치를 따라배우

는 열풍이 일고 있다. 대국이라고 차치하는 나라들도 근래에 와서야 군사강화를 앞세우고 있는데 우리 주석님과 장군님은 멀찌 지난 세기에 선군을 하셨으니 어찌 천리해안의 예지와 선전지명에 감탄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동포들의 마음 속에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경모의 정이 깊이 숨어있는데 대하여 내심 감탄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영일회장의 말은 의연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아버지 수령님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조선문화

는 것이였다.

조국에서 온 순님들에게 우리가 아직 펼쳐보이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값도 비싸거나 살피 보면 놀라서 뒤로 넘어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잘하라고.

무엇일까? 오늘은 동포예술단체의 하나인 모란봉예술단을 찾고 레일은 멀리 칭강뜨의 설산근처에 사는 동포가장을 찾아 따스께 뜨시가 좁다하게 취재길을 이어가는 우리는 주영일회장의 말은 의연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아버지 수령님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 회장은 의미있는 웃음을 넘기지 던지며 이런 말을 하

전통 『로인』협회가 주최한 경축집회에 참가해서도 그리고 불레전 『통일』 4월호에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자에로운 어버이의 불멸의 한생을 칭송하는 글들을 집집편집하려고 방금 해산한 봄임에도 눈교뜰에 없이 뛰어다닌다는 석나딸리야(석명손의 딸)주평을 만나는 시간에도…

그의 문은 며칠후에야 비로소 펼리게 되었으니 그것은 20여개나 되는 동포예술단체가 모여 따스께 뜨시 체육문화국산하 국장에서 성대하게 진행한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을 경축하는 조선민족예술축전이였다.

관람석은 따스께 뜨시에서 백여km나 멀어진 곳에서 왔다는 로인내외와 유적이 많기로 소문나 판광지로 유명해진 지방도시 카마르칸드에서 사는 동포들의 모임, 또 그 다음날은 무엇 무엇하며 태양절까지의 일정을 쭉 렬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종착점은 아직 멀리에 있고 돌아보아야 할 나라도 여럿이나 되었다.

작은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긴다 했다.

이 따스께 뜨시에 머무른 시간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 동포들이 맞고 보내는 4월의 하루하루에서 우리는 그들의 가슴속에 고이 간직된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가슴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설한 마음안고 작별인사를 하는 우리에게 얼마전 도서 『통일, 그 민족의 부름앞에』를 내놓아 조국인민들과 동포사회에 널리 알려진 조수께 뜨시 체육문화국장에서 단장되어 있었다.

비록 해외에서 살지만 자기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흡모하고 절절히 그리는 우리 동포들의 그 충정에 감동하여 선지가 그 나라 사람들도 공연이 끝나자 무대에 올라와 격동된 심정을 토로했다.

정말로 넘어질뻔 했다는 우리의 진정어린 말에 주영일회장은 얼굴에 여전히 통달기가 어린 특유의 웃음을 담고 『조국손님들이 이곳에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사진전시회에서 격정을 토로하는 동포들



대양절을 경축하는 조선민족예술축전에 참가한 동포들

해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자면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옹호하고 받들어야 한다.

선군정치는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실천투쟁 속에서 그 위력과 애국애족 정신이 뚜렷이 확증된 민족수호의 강위력한 보건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막아내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은 민족의 자주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민족문제 해결에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게 되면 민족적 친대와 멸시, 망국노의 운명을 막을 수 없다.

4월의 봄날에 나의 마음 속에 더더욱 사무치게 같다.

수령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한 인간으로부터 온 나라인민의 운명을 보살펴서 면밀히 여기고 온갖 은총과 배려를 돌려주시며 걸음걸음을 보살펴주시며 민족의 자랑으로, 세계적인 작곡가로 내세워주신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은 태양절을 맞는 4월의 봄날에 나의 마음 속에 더더욱 사무치게 같다.

수령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한 인간으로부터 온 나라인민의 운명을 보살펴서 면밀히 여기고 온갖 은총과 배려를 돌려주시며 걸음걸음을 보살펴주시며 민족의 자랑으로, 세계적인 작곡가로 내세워주신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은 태양절을 맞는 4월의 봄날에 나의 마음 속에 더더욱 사무치게 같다.

수령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한 인간으로부터 온 나라인민의 운명을 보살펴서 면밀히 여기고 온갖 은총과 배려를 돌려주시며 걸음걸음을 보살펴주시며 민족의 자랑으로, 세계적인 작곡가로 내세워주신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은 태양절을 맞는 4월의 봄날에 나의 마음 속에 더더욱 사무치게 같다.

수령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한 인간으로부터 온 나라인민의 운명을 보살펴서 면밀히 여기고 온갖 은총과 배려를 돌려주시며 걸음걸음을 보살펴주시며 민족의 자랑으로, 세계적인 작곡가로 내세워주신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은 태양절을 맞는 4월의 봄날에 나의 마음 속에 더더욱 사무치게 같다.

수령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한 인간으로부터 온 나라인민의 운명을 보살펴서 면밀히 여기고 온갖 은총과 배려를 돌려주시며 걸음걸음을 보살펴주시며 민족의 자랑으로, 세계적인 작곡가로 내세워주신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은 태양절을 맞는 4월의 봄날에 나의 마음 속에 더더욱 사무치게 같다.

수령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한 인간으로부터 온 나라인민의 운명을 보살펴서 면밀히 여기고 온갖 은총과 배려를 돌려주시며 걸음걸음을 보살펴주시며 민족의 자랑으로, 세계적인 작곡가로 내세워주신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은 태양절을 맞는 4월의 봄날에 나의 마음 속에 더더욱 사무치게 같다.

수령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한 인간으로부터 온 나라인민의 운명을 보살펴서 면밀히 여기고 온갖 은총과 배려를 돌려주시며 걸음걸음을 보살펴주시며 민족의 자랑으로, 세계적인 작곡가로 내세워주신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은 태양절을 맞는 4월의 봄날에 나의 마음 속에 더더욱 사무치게 같다.

수령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한 인간으로부터 온 나라인민의 운명을 보살펴서 면밀히 여기고 온갖 은총과 배려를 돌려주시며 걸음걸음을 보살펴주시며 민족의 자랑으로, 세계적인 작곡가로 내세워주신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은 태양절을 맞는 4월의 봄날에 나의 마음 속에 더더욱 사무치게 같다.

수령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한 인간으로부터 온 나라인민의 운명을 보살펴서 면밀히 여기고 온갖 은총과 배려를 돌려주시며 걸음걸음을 보살펴주시며 민족의 자랑으로, 세계적인 작곡가로 내세워주신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은 태양절을 맞는 4월의 봄날에 나의 마음 속에 더더욱 사무치게 같다.

수령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한 인간으로부터 온 나라인민의 운명을 보살펴서 면밀히 여기고 온갖 은총과 배려를 돌려주시며 걸음걸음을 보살펴주시며 민족의 자랑으로, 세계적인 작곡가로 내세워주신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은 태양절을 맞는 4월의 봄날에 나의 마음 속에 더더욱 사무치게 같다.

수령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한 인간으로부터 온 나라인민의 운명을 보살펴서 면밀히 여기고 온갖 은총과 배려를 돌려주시며 걸음걸음을 보살펴주시며 민족의 자랑으로, 세계적인 작곡가로 내세워주신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은 태양절을 맞는 4월의 봄날에 나의 마음 속에 더더욱 사무치게 같다.

수령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한 인간으로부터 온 나라인민의 운명을 보살펴서 면밀히 여기고 온갖 은총과 배려를 돌려주시며 걸음걸음을 보살펴주시며 민족의 자랑으로, 세계적인 작곡가로 내세워주신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은 태양절을 맞는 4월의 봄날에 나의 마음 속에 더더욱 사무치게 같다.

수령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한 인간으로부터 온 나라인민의 운명을 보살펴서 면밀히 여기고 온갖 은총과 배려를 돌려주시며 걸음걸음을 보살펴주시며 민족의 자랑으로, 세계적인 작곡가로 내세워주신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은 태양절을 맞는 4월의 봄날에 나의 마음 속에 더더욱 사무치게 같다.

불구대천의 원쑤 리명박 쥐새끼 무리들을

역적파당의 위험수위에 이른 도발광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

만고역적 리명박 쥐새끼 무리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

그 분노가 『짓뭉개버리라』, 『죽탕쳐버리라』, 『찢어죽여버리라』의 함성으로 하늘땅을 흔들고 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쓸다닥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리명박역적파당들이다.

4월 20일에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쥐새끼들의 소굴인 『통일교육원』에 나타나 『지금 북에는 빵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인권도 필요한 것』이라며 우리에게 미싸일개발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북의 체제변화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이북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협동농장들을 해체하고 농지개혁을 실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제넘는 소리를 또다시 쳐냈다.

이에 앞서 4월 19일에는 피뢰국방과학연구소라는데 나타나 불품없는 몇 기의 미싸일을 어루만지며 그것들이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그 어느곳이나 『죽자 타격』 할 수 있는 정밀성과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허접게 떠벌이면서 감히 『집무실 창문을 통한 최고수뇌부라 격설』까지 무엄하게 내돌리는 국지 엄중한 도발광기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피뢰국방부 장관 김관진을 비롯한 군부호전광들이 함께 단장을 맞추며 돌아온 것이다.

현실은 역적파당의 도발광기가 이미 본분을 잊은지 오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역적파당의 시녀로 전락된지 오

랜 보수언론매체들은 쥐새끼 무리들의 추악한 망동을 그대로 여론화하는 추태를 부리는데 평론이 되어 돌아치고 있다.

여기에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동아일보』와 『KBS』, 『MBC』, 『YTN』과 같은 언론매체들까지 가담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지른 만고역적죄를 천만

번 사죄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도 성차지 않을 역적파당들이 도리어 이발을 갈며 도전해나서고 있는 것이다.

날을 따라 험악하게 번져지고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위임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통고한다.

우리 혁명무력은 빈말을 모른다.

이 곧 개시된다는 것을 알린다.

우리의 특별행동은 노호한 민심과 분노의 폭발이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사수하기 위한 천만군민의 성전이다.

특별행동의 대상은 주범인 리명박역적파당이며 공정한 여론의 대들보를 쓸고 있는 보수언론매체들을 포함한 쥐새끼 무리들이다.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식의 방법으로 모든 쥐새끼 무리들과 도발군원들을 불이 번개하게 초토화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 혁명무력은 빈말을 모른다.

주제 101(2012)년 4월 23일

평양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대답

최근 리명박당이 피뢰국방과학연구소를 쌓아나고 저들이 개발한 미싸일들을 공개하면서 전쟁광기를 부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19일 리명박역도는 수하출개 호전 광들을 끌고 피뢰국방과학연구소라는데를 타나이며 저들이 개발했다는 미싸일의 발사장면을 담은 동화상이라는 것을 보면 가소롭게 전쟁광기를 부리는 놀음을 벌리였다.

여도는 북이 자기들을 양잡아보니 까 험신도 때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북을 압도하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였는가 하면 피뢰군부들은 저들의 미싸일 성능이 어찌고자지고 하면서 『응징』이니, 『정밀타격』이니 하며 회피운 소리도 내뱉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을 통해 파시된 우리의 군사적 위력에 전률하고 질겁한 자들의 히스테리적 발작이다.

군사문의 한이고 정치백치인 리명박

역도가 무엇을 안다고 피뢰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어 훈시들을 벌린 것도 옷기는 일이거나 40초동안의 미싸일 발사동화상으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 족속들을 위안해보려고 유치한 놀음을 벌린 것은 더욱 가관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도 피뢰파당의 미싸일 공개 놀음에 행소를 보내고 있다.

우리 혁명무력은 미국의 식민지 고용군이 피뢰군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으며 피뢰호전광들이 조금이라도 바스락거리면 쥐새끼 짙은 박멸해치우고 그 기회에 아예 남쪽땅을 완전히 하고 앉을 것이다.

리명박이 쥐구멍에 불파한 청와대 지하방공호안에 들어박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오산이다.

인간에게 백해무익한 쥐새끼는 모조리 때려잡아야 한다.

이미 제명도 다 산 산송장과도 같은 리명박역도는 부질없는 놀음에 매달리기보다 제 무덤으로 갈 생각이나 해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민족앞에, 혁사 앞에 또다시 천추에 용납 못할 만고대역죄를 저지른 리명박역적파당에 대한 물질을 끓어오르는 분노와 적개심에 치를 떨고 있다.

온 거래와 전세계가 인류의 대경사인 뜻깊은 태양절 100돐을 맞으며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흠토의 정을 금치 못하고 있는 때에 유독 리명박역도만은 세상민심에 등을 돌리고 인간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온갖 나절하고 비렬한 뜻된 짓을 다하였다.

여도는 입에 게거품을 물고 북이 장거리미사일발사에 만도 물을 얼마 썼을 것이라고 그 돈이면 강냉이 얼마를 사올 수 있었을 것이라니 뛰어하고 쳐쳐댔는가 하면 어용나팔수들을 내세워 그 무슨 『잔치비용』이요 뭐요 하며 감히 입에 담지 못할 수자질을 해댔다.

심지어 리명박역도의 배후 조종에 따라 피뢰모략군들은 몇푼의 돈에 매수된 쓰레기 우리 민족이 세상에서 제일

같은 극우의 깡패들을 거리에 내몰아 우리의 최고존엄을 중상하는 무지막지한 망나니짓을 거리낌없이 감행하며 란동을 부리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신성한 우리 혁명의 수부부, 우리 체제,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정면도전이며 특대형비상도발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민족의 얼마저 원전히 쳐버리고 반역파 대결을 위해 퍼를 물고 날뛰는 불구대천의 원주인 리명박취재기파당을 이 땅에서, 이들아래서 써도 없이 깨끗이 쓸어버릴 것을 북과 남, 해외의 온 거래와 함께 염두에 선연한다.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어떻게 되여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고 수난의 견은 구름만이 떠돌던 이 나라의 하늘가에 해빛이 비쳐왔고 비참하고 처절한 식민지는데의 운명을 강요당하던 리명박취재기파당을 쓸어버리자는 히스레

역민으로도 계산할 수 없고 그 어떤 자대로도 절수 없는 우리 거래의 열렬한 충정의 세계, 위인홍의 마음을 무엄하게도 금전으로 나절하게 셈질하는 리명박취재기파당을 당장 죽탕쳐버릴 천백배의 복수심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세계는 우리 천만군민의 보복징벌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최고령도자의 힘찬 발걸음마다 최후승리를 향하여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진막강한 민족의 비극이며 수치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민족의 태양을 향해

무엄하게 사대질하는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당장 죽탕쳐버릴 천백배의 복수심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여제의 이번 특대형도발행위는 서리발비낀 혁

도발행위는 도발원점들을 통채로 날려보내자!』 등의 구호관들과 선전화들이 세워져 있었다.

대회에는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 계층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노래주악으로 대회들이 시작되었다.

또한 『리명박취재기파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성전을

천하에 둘도 없는 극악한 리명박취재기파당이 제아무리 쓸다질해도 우리의 철옹성 같은 일심단결은 끄떡없으며 오히려 철천지원주들에게 대한 중요와 분노만을 더욱 가중시킬뿐이다.

하기에 온 거래는 성스러운 주체 100년사를 궁지높이 들이켜보면서 망국노의 눈물을 거둔 설움을 영원히 가서주신 거래의 은인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을 그토록 못 잊어하고 있는 것이다.

억만으로도 계산할 수

없고 그 어떤 자대로도 절수

없는 우리 거래의 열렬한

충정의 세계, 위인홍의

마음을 무엄하게도 금전으로

나절하게 셈질하는 리명박

취재기파당을 당장 죽탕쳐

버릴 천백배의 복수심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세계는 우리 천만군민의

보복징벌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최고령도자의 힘찬 발걸음마다

나절하게 셈질하는 리명박

취재기파당을 당장 죽탕쳐

버릴 천백배의 복수심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여제의 이번 특대형도발행위는 서리발비낀 혁

도발행위는 도발원점들을 통채로 날려보내자!』 등의 구호관들과 선전화들이 세워져 있었다.

대회에는 지방당, 정권기

관, 근로단체, 일군들, 조선인민

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

계층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참

가하였다.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노래주악으로 대회들이 시작되었다.

또한 『리명박취재기파당을 쓸

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성전을

20일 리명박역도가 『대북정책』과 관련한 그 무슨 특별강연이라는 늘음을 벌려놓고 우리와의 존엄과 체제를 또 다시 악랄하게 걸고드는 도발적망발을 늘어놓았다.

여도는 우리 인민생활이 어찌고저찌하고 하며 혐갈을 풀어놓고 철학을 풀어놓고 청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지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주제넘게 지껄여댔는가 하면 그 무슨 『인권』이요, 『변화』이요, 『인권』이요, 『변화』이요 하고 떠들어댄 것이야말로 무덤의 망우석도 웃지 않을수 없는 회비국이다.

리명박역도가 미국행각때 국회에서 연설하여 가장 박수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제 자랑을 늘어놓은 것은 소도 웃을 일이다.

얼마나 자랑거리가 없었으면 미주국회의 합작이 잘되여 『통미봉남』은 파거사로 되었다고 떠벌였는가 하면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회피운 나발을 불어댔다.

뿐만 아니라 낫뜨거운 줄 모르고 제놈의 친미사대적 추래를 자랑처럼 늘어놓으면 어종이떠종이 피뢰박수부대까지 동원하여 떨린 그리한 박수광대극을 꺼내들었는가 하는것이며 설사 박수를 받았다면 남조선안에서는 민심의 고립배격을 받고 심판의 단두대에 올라있는 역도가 미국상전을 얼마나 점거해버렸을까. 그것이 그런 상전의 환영을 받

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여도야말로 친미에 환장이 되고 종족되어 남들이 비웃는 것도 모르는 무용병환자가 된 것이 분명하다.

제다가 리승만이 60여년전에 내들었던 『농지개혁』이라는 것을 들고나와 그 누구에게 주제넘게 려설한 것도 역도의 무지와 천진성을 드러내는 정치만화이다.

여도의 망발은 너무도 졸렬하고 유치하고 어처구니없는 것으로서 만사람의 조조만을 자아발뿐이다.

여도가 감히 우리와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주제넘은 사대질을 해대면서 일빠진 나발을 무엄하게 불어낸 것은 태양절 경축행사를 통해 파시된 우리 공화국의 위상과 국력, 특히 일심단결과 무진막강한 군력에 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세계적인 파문이 일어나는데 눈이 뒤집혀 개꿈같은 망상들이 산산조각이 나게 된데 국도로 악에 받친자의 최후발악이다.

그것은 민족앞에 지은 만

때릴나위도, 밟아죽일나위도 없는 생쥐상관의 명박놈에게 사죄를 받아낸다는 것은 더없는 수치이다.

연설자들은 전체 인민이 인민군인들과 한전호에서 서서 우리와의 최고존엄을 굳건히 수호하며 불구대천의 원주 리명박취재기무리들이 영영 쪽짜거리지 못하게 죽탕쳐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들은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이어 규탄시위들이 있었다.

시위참가자들은 『리명박취재기무리들에게 보복의 불벼락을 쏠려우자!』, 『리명박취재기무리들의 손통을 끊어버리자!』 등의 구호들을 비롯한 분노의 함성을 연방 터치며 거리들을 누비나갔다.

본사기자

하늘에 대고 감히 사대질을 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천벌을 면치 못할것이라는 조선인

이 땅, 이 하늘 아래에서 흔적도 없이 죽탕쳐버리자

태양절 중상모독은 특대형 반공화국도 발행 위

얼마전 공화국에서는 시대와 역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여 절세의 위인, 결출한 정치원로로 다함없는 훈장을 받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돌이켜 보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옮바른 영도자를 모시지 못해 망국노의 설음을 당해야 했던 우리 민족이고 세계지도에서 빛마저 빛았던 조선이었다.

자기를 지킬 총대가 없어 상가집 개만도 못한 처지에 있었던 민족의 존엄이 우주에 닿고 화승총자 변법한 것이 없었던 우리 조국이 그 어떤 대적도 범접 못하는 강국으로 전변된 것은 불세출의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을 모셨기 때문이다.

하기에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류는 해마다 4월 15일이 오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

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흠토의 정을 안고 태양절을 커다란 환희 속에 경축하여왔다.

더우기 이번 태양절은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여 주시대의 앞길을 밝히신 위대한 주석께서 탄생하신지 100돐이 되는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날인 것으로 하여 공화국은 물론 세계적 판도에서 절세의 위인들을 칭송하는 특색있는 정침문화행사들이 광범히 진행되었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꽂바구니와 선물, 명예 칭호들을 드리는 등 온 세계가 위인 흠토의 열풍으로 세차게 끌어번졌다.

이번 태양절에 성대히 진행된 경축열병식은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파시한

대상은 무리

태양절 경축 행사가 성황리에 벌어지던 때에 리명박역도는 공화국을 갖은 험구로 비난하던 글에 그 무슨 『고립』이니, 『개혁, 개방』이니 하는 개나발도 불어대였다.

그야말로 송장냄새가 끙끙 나는 비루먹은 늙다리개의 미친 너두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공화국은 자주와 인간존엄으로 빛나는 사회주의제도이다. 지도사상으로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이고 제도로 인민이 주인되고 인민을 위한 바른 사회이다.

하기에 미국의 종교지도자도 공화국의 현실을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예수가 2000년 전에 그렇게 바라던 세상, 예수가 가서도 할 일이 없는 지상천국』이라고 했다.

그런데 남조선을 사람 못 살 생지으로 만든 리명박때당이 감히 공화국에 대해 삶과 죽을 험구로 비난하던 그 무슨 『변화』니, 『개혁』이니 하고 지껄여댔으니 이 얼마나 무엄한 망동인가.

그들이 짓어대는 『개혁,

대상은 무리

『실용』 독재가 판을 친 지난 4년간 남조선은 최악의 파쑈사회, 인권불모지, 민생의 생지으로 화하였다. 사회의 각계층 인민들을 상대로 독재권력이 불법사찰의 검은 마수를 속속들이 뻗쳐온 사설이 드러난 현실이 보여주듯이 리명박이 애달로파 쇼록군중의 폭군이고 대결망나니 중의 망나니이다. 오죽하면 남조선에서 리명박을 형상한 동상을 도끼로 깨부시는 동양상이 제작되어 사람들의 대인기속에 널리 나돌고 있겠는가.

그러고 보면 인간 중심의 사회가 인간멸시의 동물 같은 사회로 바뀌여져야 한다는 리명박의 사고는 초보적인 사물판단능력도 없고 사유능력이 2MB밖에 안되는 저등아, 인간추물만이 가질 수 있는 저속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리명박때당이 아무리 짓어대도 그 개같은 소리에 온전한 리성을 가진 사람치고 누가 귀기울이겠는가.

구태여 변화에 대해 말한다면 오늘 진짜로 변화해야 할 곳은 남조선이고 진짜 척결해야 할 대상은 리명박이라고 수 있다.

본사기자 흥법식

군사문외한이고 정치숙맥인 리명박이 공화국의 선군

본사기자 흥법식

인 리명박이 공화국의 선군

리명박때당은 민족앞에 무릎꿇고 당장 사죄하라

독립국가협동체 지역동포단체들 공동 성명 발표

본사기자 흥법식

인 리명박이 공화국의 선군

본사기자 흥법식

인 리명박이 공

그 망할놈의 입때문에

말한마디로 천금을 살수도 있고 재난을 당할수도 있다 남조선의 리명박여적이 바로 후자에 속하는 재난덩어리다. 이번에도 리명박은 북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체제를 비난한 호전적인 망발로 공화국 군대와 민심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체제변화》니, 《농지개혁》이니 하고 떠들다 못해 《집무실 창문을 통한 최고수녀부타격설》까지 운운한것은 참을수 없는 특대형도발이고 사실상 동족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닐수 없다.

조선반도는 전시상태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화근은 바로 국도의 대결방인 리명박의 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집권해서부터 오늘까지 리명박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모두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품수없는 케변이고 도발적인 악당뿐이다.

《북에 어떤 대화제안이

나 접속도 하지 말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면서 통일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 《북이 자세를 바꾸

조선반도는 오랜 세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북남관계가 최악의 위기에 처하고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이 고조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것은 미국과의 침략동맹 강화를 최우선시하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리명박《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친미사대정책, 반공화국 대결정책과 폐여놓고 말할 수 없다.

남조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최종목표로 내세운 현 보수집권 세력이 출현하여 집권 4년 기간 북남사이의 대결은 한계선을 넘어 불과 불이 오가는 파국적 상태로 이어졌다.

남조선보수당국자들의 반공화국대결책은 동족의 대국상을 계기로 더욱 우심하게, 더욱 로골적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슬픔으로 온 민족은 물론 세계 각계가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있을 때 유독 남조선당국자들은 동족의 아픈 상처에 매우 재

기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주적 개념을 확립하라》, 《북쪽을 향해 눈을 부릅여야 한다》, 《통일이 도적처럼 한밤중에 올수 있다》… 그동에 놑아난것은 북남관계이고 조선반도의 평화이다.

남조선인민들이 《꿰고싶은 입》이라고 《재봉를 상》을 수여하며 리명박을 야유, 비난한것도 그래서이다.

그 《꿰고싶은 입》에는 《동아일보》, 《KBS》, 《YTN》, 《MBC》와 같은 보수언론매체들도 속한다.

이미 전에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의 어옹나팔수가 되어 동족보해의 돌격대 노릇을 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으며 《KBS》, 《YTN》, 《MBC》 등에서는 지금도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로조의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남조선인민과 우리 겨레에게 불행의 화근으로 되는 리명박과 보수언론을 비롯한 역적폐당의 《꿰고싶은

임》은 짓조아놓는것이 아니라 뭔데에 그 몸통을 죽탕쳐버려야 한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의 통고는 바로 리명박과 보수언론을 비롯한 역적무리들을 겨냥하고 있다.

가 소롭게도 리명박은 《동아일보》, 《KBS》, 《YTN》, 《MBC》 등 6개의 보수언론사에 무장한 경찰무력을 증가하여 파수를 세웠다고 한다.

3~4분,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정벌의 불벼락을 내릴 공화국 군대의 특이한 수단과 방법을 파악 무슨 수로 막아낼수 있을가?

최저은 높이 발편장을 못 잔다고 리명박은 자기에게 《총술한》 보수언론사에 몇명의 경찰이나 보내주고는 저는 이미 청와대 땅굴에 박혀있을것이다.

하지만 뛰어야 벼룩이고 날아야 하루살이다.

짧은 허가 긴 목을 감는다고 리명박과 역적폐당이 쥐구멍에 박혀있든 하늘끝으로 날아가든 무자비한 징벌은 피할수 없다.

김철수



리명박역적폐당에 대한 불라는 적개심을 안고 전투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고 있다.

개무리들이 또다시 짓어태기 시작했다.

개들이 짓어다면 동네가 소란한데 그치지만 리명박개무리가 짓어대니 삼천리강토가 삽시에 소란해졌다.

얼마전에는 더러운 개주동이에 개거품을 물고 우리

의 태양절경축행사를 혐오했으며 짓어대며 4월 20일에는 《이북주민들의 힘》을 개선하려면 협동농장들을 해체하고 《농지개혁》을 실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제넘는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마련이다.

역적폐당의 변함없는 동족대결책동에 국도에 달한 최고존엄모독행위들로 인해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인내력은 한계점을 넘어서고 분노와 멸적의 의지가 온 강토에 차넘치고 있다.

《하늘에 대고 살대질하는 놈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 《취명박개무리들을 죽탕쳐버리라!》.

이것이 서리발친 군대와 인민의 분노의 감정이고 멸적의 핵심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최대국한점에 이를 속에 나날이

이로 골짜고 되고 있는 리명박개무리들의 반공화국책동이 임의의

시각에 전쟁을 불러오게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현실은 남조선역적폐당이 애말로 우리 민족과 한화늘을 이고 살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이 땅위에 재난만을 몰아오는 전쟁대결광신

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체질적으로 동족에 대한 국도의

증오심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죽지 못해 안달이 나서 저지르는 또 하나의 추태이고 망동이 아닐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최근 조선반도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볼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은 다름아닌 리명박역적무리들이다.

리명박반역 《정권》은 지난해의 민족대국상기 간에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 할 반인륜적범죄도 성차지 않아 온 인류가 대경사로 맞이한 이번의 태양절

에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태양절경축행사를 벌리며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 힘으로 대처하고

반역통치를 끝장내며 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주화실현

헛나발 불지 말고 와서 보라

소리를 또다시 훼냈다.

그야말로 존엄높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고 저들의 썩어빠진 자본주의체제를 이식시키려는 로급적인

도발행위가 아닐수 없다.

그따위 헛나발을 훼치는 자들과는 말도 하고싶지 않지 만 이것만은 묻고싶다.

새로 일떠서는 만수대지구 살림집을 보았는가?

새 세기 현대적인 국장으로 일떠선 인민국장을 보았는가?

남조선사회는 1%의 부자들

만 살찌우는 부자친국이지만

공화국은 모두가 존엄과 평

등, 행복을 누리는 인민의

별세상이다.

남조선에서 보수집권세력들이 벌리

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극한점을 넘어

서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국우보수세력들은 서울에서 그 누구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자유주간》 행사를 보았

는가?

남조선에서 보수집권세력들이 벌리

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극한점을 넘어

서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국우보수세력들은 서울에서 그 누구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자유주간》 행사를 보았

는가?

남조선에서 보수집권세력들이 벌리

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극한점을 넘어

서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국우보수세력들은 서울에서 그 누구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자유주간》 행사를 보았

는가?

남조선에서 보수집권세력들이 벌리

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극한점을 넘어

서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국우보수세력들은 서울에서 그 누구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자유주간》 행사를 보았

는가?

남조선에서 보수집권세력들이 벌리

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극한점을 넘어

서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국우보수세력들은 서울에서 그 누구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자유주간》 행사를 보았

는가?

남조선에서 보수집권세력들이 벌리

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극한점을 넘어

서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국우보수세력들은 서울에서 그 누구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자유주간》 행사를 보았

는가?

남조선에서 보수집권세력들이 벌리

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극한점을 넘어

서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국우보수세력들은 서울에서 그 누구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자유주간》 행사를 보았

는가?

남조선에서 보수집권세력들이 벌리

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극한점을 넘어

서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국우보수세력들은 서울에서 그 누구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자유주간》 행사를 보았

는가?

남조선에서 보수집권세력들이 벌리

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극한점을 넘어

서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국우보수세력들은 서울에서 그 누구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자유주간》 행사를 보았

는가?

남조선에서 보수집권세력들이 벌리

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극한점을 넘어

서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국우보수세력들은 서울에서 그 누구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자유주간》 행사를 보았

는가?

남조선에서 보수집권세력들이 벌리

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극한점을 넘어

서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국우보수세력들은 서울에서 그 누구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자유주간》 행사를 보았

는가?

남조선에서 보수집권세력들이 벌리

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극한점을 넘어

서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국우보수세력들은 서울에서 그 누구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자유주간》 행사를 보았

는가?

남조선에서 보수집권세력들이 벌리

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극한점을 넘어

서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국우보수세력들은 서울에서 그 누구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자유주간》 행사를 보았